

구약성경에서 대명사의 번역

박영복*

1. 들어가는 말

현대교회에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서로 다른 적어도 두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두 집단의 요구는 그 차이가 현저하다. 하나는 예배와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의 요구이며, 성경이 교회의 담을 넘어 다양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친숙한 성경 표현의 개정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¹⁾ 다른 하나는 언어학적 성과와 진리 탐구 그리고 교리의 영역에서의 필요로써, 성경 원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살려 성경의 메시지를 학문적인 영역에서와 교회 현장에 전달하고자 번역을 과감하게 수정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일반 성도들과 신학교의 전문가 집단 사이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 번역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집단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고 성경 번역개정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또한 그 차이를 점점 극복하는 성경 번역개정의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면서 동시에, 예배 중심 세대²⁾의 ‘감성적 가치’를 존중하는

* 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ichpyb@hanmail.net.

1) C. 켈러, “루터 성경의 재검토: 문제, 원칙, 결과 및 남은 문제”, 유은결 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311-317.

2) ‘예배 중심 세대’란 예배에 참석하는 다양한 세대 가운데에 예전(liturgy)에 중심이 되는 세

번역의 원칙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가정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영역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공통된 기준점을 인식하고 점점 서로 일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영역의 출발점은 다소 원칙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 기준을 마련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언어학적 데이터, 문학적 장치들, 구문론적 정의들 등을 어느 정도 번역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 성경 번역은 당연히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세워야 하기에, 당연히 지속적인 토의와 다양한 학문적 영역들이 대거 참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 성경 해석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학자적 성경 번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원리와 원칙의 난상토의를 거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 성경 번역을 한 권씩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주장들이 수렴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런 실천적 행동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지향점을 마련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지향점은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에 있다.

둘째 영역은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는 ‘예전적 성경’의 ‘검토’ 혹은 ‘개정’의 영역으로, 예배 중심 세대의 언어, 성경 지식, 친숙함, 감성적 가치들³⁾을 어떻게 번역의 기준으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논의이다. 이 영역의 기준은 아마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번역개정의 원칙을 세울 때 적절한 신학적 제어를 통하여 성경 원문의 의미가 오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성경 번역이 예배 중심 세대의 성경 지식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이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두 영역의 입장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현재 상태에서 학문적인 영역의 기준이 예전적인 영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도들의 ‘감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정의 제안은 없을까? 이에 대해 본 논고는 대명사의 번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제안한다.

대, 신앙의 감성적 가치를 결정하는 세대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3) 다음의 진술을 통하여,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가 성경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975년 개정판은 이 본문을 지나치게 바꾸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친숙한 어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5가지 수정이 신속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1976년에 미미하게 수정한 본문에 대하여 1984년 거의 60개에 달하는 개정이 다시 있었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기존의 성서 역본에 집착하며, 검토자가 본문에 반영된 감성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C. 켈러, “루터 성경의 재검토: 문제, 원칙, 결과 및 남은 문제”, 314.

2. 대명사 번역의 중요성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히브리어는 한국어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언어이다. 기본적으로 동사에 주어로 대명사가 표기되고, 명사, 동사, 부정사, 분사, 전치사 등에 ‘대명사 접미사’ 형태로 표기됨으로 문장에서 주어, 소유격, 목적격, 여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히브리어는 대명사가 발달한 형태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주체와 객체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세 가지 사례는 히브리어 대명사의 언어적 특징과 적절한 번역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예시이다.

2.1. 창세기 14:19-20

창세기 14:19-20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다. 축복의 말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창 14:19c)

... וְכָרַךְ אֲבְרָם לְאֵל עֵלְיוֹן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람이 축복을 받고 있다

(창 14:20a)

וְכָרַךְ אֵל עֵלְיוֹן אֶשְׁרֵי-מַנְנֵן כָּרַךְ כָּרַךְ

그리고 너의 손에서 너의 고통을 구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다

여기 두 문장은 같은 동사(כָּרַךְ, 수동분사; ‘축복하다’ 혹은 ‘찬양받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목적어, ‘아브람’과 ‘하나님’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역개정』에서는 이 동사를 각각의 대상에 따라 ‘복을 주옵소서’와 ‘찬송할지로다’로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화자는 ‘멜기세덱’으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명령을 받는 수신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19절은 ‘하나님’이 수신자이고, 20절은 ‘아브라함’이다. 이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는 말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두 명의 수신자로 파악이 되는 이유는 19절에서 아브람이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20절에서는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대명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번역을 하

였기에 한 명의 화자가 두 명의 수신자에게 각각 보내는 근접한 메시지로 적절히 구분해 낼 수 있었다.

2.2. 에스겔 34:23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께서 ‘나의 양’(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에 특별히 23절은 다윗 계열의 목자가 ‘나의 양’을 다스릴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겔 34:23a)

וְהִקְמַתִּי עֲלֵיהֶם רֹעֶה אֶחָד

그리고 나는 그들(3PIM)위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겔 34:23b)

וְרֹעֶה אֶתְהֵן

그리고 그는 그들(3PIF)을 돌볼 것이다

(겔 34:23c)

אֵת עֲבָדַי רֹוֹד

나의 종 다윗을

(겔 34:23d)

הוּא יִרְעֶה אֹתָם

그리고 그들(3PIM)을 돌볼 것이다

(겔 34:23e)

וְהוּא יִהְיֶה לָהֶן לְרֹעֶה

그리고 그는 그들(3PIF)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의도적으로 대명사를 3인칭 남성 복수와 여성 복수로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그 대명사들을 추적해 보면, 3인칭 남성 복수는 ‘전체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3인칭 여성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 즉 ‘나의 양’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결과 메시지는 “전체 이스라엘(3PIM) 위에 다윗 계열의 한 목자를 세우는데, ‘나의 양’(3PIF)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양’을 돌보기 위함”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번역하면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도 그 차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신학적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글 번역에서 이런 변화

4) 박영복,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 34장의 신학적인 담화”, 『Canon&Culture』 17 (2015), 179.

를 표시할 수 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사야 1:10

이사야 1:10은 화자가 ‘악한 이스라엘’(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한글로 잘 번역된 대명사의 변화는 신선한 해석의 제안을 이끌 여지를 남긴다.

(사 1:10a)

שְׁמְעוּ דְבַר־יְהוָה קְצִינֵי סוּם

여호와와 말씀 들어라(-PIM) 소돔의 관원들아

(사 1:10b)

הָאֲזִינוּ תוֹרַת אֱלֹהֵינוּ עִם עֲמֹרָה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PIM) 고모라의 백성들아

화자는 10b절에서 등장하는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 분명하다. 아마도 그 화자는 이사야로 추정되며, 칭자는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로 비유되는 ‘악한 이스라엘’이다. 이 장면에서 하나의 해석의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사야를 포함한 ‘우리’라는 그룹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포함한 ‘경건한 그룹’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이스라엘’로 양분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사야서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콘래드(E. W. Conrad)는, 이사야의 선포가 ‘경건한 그룹’에게는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고, ‘악한 이스라엘’에게는 눈이 멀고 귀가 닫히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대명사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처럼 신학적인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3. 대명사의 번역 제안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성경 히브리어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명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증해 보았다. 이제 소개되는 네 가지 사례는 한글 성경 번역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

5) E. W. 콘래드, 『이사야서 읽기』,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134-172.

을 제시하는 것인데, 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분석함으로써, 번역의 원칙을 세우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1. 에스겔 1:2-3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 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다. 이런 순간을 직면한 에스겔의 놀라움은 3절에 잔뜩 묻어 나오고 있다.

(겔 1:3a)

הָיָה הָיָה דְבַר יְהוָה אֶל־יְחִזְקִאל בֶּן־בוּזִי הַכְּהֵן

진실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했다

(겔 1:3b)

וַתְּהִי עָלָיו שָׁם יְדִי־יְהוָה

거기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있었다.

에스겔 1:2-3은 대명사의 변화의 측면에서 주변에 비해 독특한 부분이다. 1절과 4절에서 에스겔이 1인칭 화자로서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면, 2-3절에서는 독특하게도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에스겔의 ‘해설’로 보이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메시지를 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거기’(שָׁם)라는 말을 삼입함으로 여호와가 바벨론에 나타남을 또한 강조한다.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3절에 ‘나’라는 말을 삼입하여 마치 1인칭 서술이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나 에스겔에게”)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에스겔의 해설’과 ‘그의 놀라움’의 표현이 생략된 형태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3.2. 에스겔 24:14

에스겔 24:1-14는 ‘가마솥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정화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4절은 그들의 뼈 속까지 물든 죄에 대한 정화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의 결심이 단호하게 드러나지만, 이 심판을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누우치지도 않는다’고 표현함으로 오히려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결단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겔 18:23). 『개역개정』의 표현에 따르면, 이 가운데 14절의 ‘그들’(3PIM)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겔 24:14f)

וְלֹא אֶנְחַם כְּרַבְרָבָהּ

너의 행위들처럼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겔 24:14g)

וְכַעֲלִילוּתֵיהֶם שִׁפְטֵנִיךָ

너의 무자비함처럼 그들이(3PIM)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다라도 심판에 참여하는 집단은 없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명사 ‘그들’(3PIM)을 추적해 보면, 일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4f절의 ‘너의 행위들’(רַבְרָבָהּ)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근접 문맥에 의하여 대명사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것은 원천언어(source language)와 대상언어(target language)의 언어적 차이 때문이며, 때론 번역에서 제외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조적인 해설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3.3. 에스겔 37:7

에스겔 37:7에서 2인칭 남성 복수 동사(הִקְרַבְתֶּם)와 그 뒤에 따라오면서 ‘주어’라고 여겨지는 여성 복수 명사(עֲצֻמוֹת)와의 불일치 부분은 ‘마른 뼈 환상’의 인기만큼 많은 주석가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⁶⁾ 일반적으로 성경 히브리어에서 동사와 그의 ‘명시된 주어’는 성과 수가 일치해야 하기에, 주석가들마다 다양한 시도로 이 문장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현재 맞소라 본문(Masoretic Text) 형태를 존중하면서 이 불일치에 대한 전통적인 해설은 그리 명쾌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일 여성 복수 명사인 ‘뼈들’(עֲצֻמוֹת)을 문장 중간에 삽입된 호격(vocative)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였던 에스겔 자신조차도 놀라서 외치는 소리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직역할 수 있다.⁷⁾

6) 박영복, “에스겔 37장 7절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교회와 문화』 31 (2013), 124-127.

7) Ibid., 136.

(겔 37:7f)

וּתְקַרְבוּ עֲצָמוֹת עֵצִים אֶל-עֲצָמוֹ

너희들이 연결되었다 뼈들아! 뼈에 그의 뼈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된 ‘호격’으로 번역하면, 『개역개정』의 삼인칭 서술적 관점의 건조한 표현을 보다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 때로는 동사의 인칭대명사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3.4. 호세아 1-2장

여기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번역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역개정』에서 호세아 1-2장은 히브리어의 대명사의 표시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 대명사를 고유명사로 치환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 번역하였다. 호세아 1:1-2a에서 담화의 주요 참여자(main participant)는 “여호와”와 “호세아”인데, 본격적으로 담화가 시작되는 1:2b에서부터는 그 두 참여자들이 모두 고유명사로 등장하는 지 혹은 대명사로 대체되는지에 따라 언어적 계층구조 및 세부 단락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언어적 골격에 해당하는 역할은 *Wayyiqtol* 동사에 3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체의 형식을 띠고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2에 “너(호세아)는 가서”, “여호와를 떠나”, 1:7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야기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 혹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언어적 계층구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⁸⁾

1:1~2a 표제 (“여호와”, “호세아”)↳1:2b(WayX⁹⁾)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1:3a(Way0) 그(호세아)가 가서↳1:4a(WayX) “여호와”가 그(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1:6b(Way0) 그(여호와)가 그(호세아)에게 이르시되| ↳1:9a(Way0) 그(여호와)가 이르시되↳3:1a “여호와”가 내게(호세아) 말씀하셨다.

8) 박영복, “호세아 1-2장의 본문—언어학적 분석”, 『구약논집』 16 (2020), 111-114.

9) ‘Way’는 *Wayyiqtol* 동사 형태를 의미하고 ‘X’는 ‘명시된 주어’가 뒤따라오는 경우를, ‘0’은 ‘명시된 주어’가 없는 경우를 표현한다. ‘명시된 주어’가 없이 동사에 대명사로만 주어가 표시되면, 그 앞의 관련 문장에 종속될 수 있기에 계층구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원문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와 그의 대명사를 표시하여 정리하면, 두 참여자들이 모두 고유명사로 나타날 때 가장 외곽의 언어적 골격에 해당하며 가장 큰 단락을 형성하고, 두 참여자들 중 하나만 대명사로 대체 되면 보다 작은 단락의 표시이고, 둘 다 대명사로 대체되면 가장 작은 단락의 언어적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문에서 표현하는 대로 고유명사와 대명사를 번역하는 것은 본문의 언어적 구조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독자들의 성경 이해를 도울 수 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 히브리어에서 대명사를 정교하게 번역하는 것은 독자들이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도록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도들의 ‘감성’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인위적으로 문맥에 맞춘 번역(3.1), 언어적 차이에 의한 불명확한 번역(3.2), 본문에 표시된 대명사를 존중하는 번역(3.3과 3.4) 등을 통하여 대명사 번역의 기준점들을 살펴보았다. 번역의 개정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지만, 적어도 성경 히브리어의 대명사의 번역이 다양한 수준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소개된 예증들로 인하여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 바라기는 이런 연구들이 더욱 진전되어서 성경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문의 표현을 살리면서 불편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에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역개정의 원칙들이 세워지길 바라 마지않는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3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27일)